

무산된 남북불자 동경회의 무엇을 남겼나

한발 다가선 '南北불심'

통일을 위한 남북불자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동경회의가 당초 예상대로 정부측의 북한주인 접촉불화로 무산됐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무산"이었으나 남북불교대표들의 화합가능성을 한층 높여준 시도로 평가된다.



◇ 지난 2일 일본 중상사에서 열린 회생동포영령 합동위령법요에서 한국측대표 서봉스님과 북측대표 황병대 조불련 부회장이 헌화하고 있다.

남북불교대표들은 이번 만남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양측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선언문 초안에 나타난 대로 "통일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추진한다"는데 동의의 표현으로써 지금까지 못치러 있었던 남북불교대표의 만남과는 달리 한층 진전된 단계로 나아가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공동 선언문' 초안에 의견 일치 일본 한불련·조불협 교류다져

이런 의식한 듯 정부의 북한주인 접촉불화로 남북불교대표 회의가 무산되자 한국대표단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일주스님의 방북을 정부가 불허할 경우 불교계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 제스처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위해 재일본불교단체인 한불련과 조불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만남을 통해 회의개최를 추진하고

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공동행동과 공동모임의 적극추진 △일제하 회생동포 위령사업과 회생동포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업의 공동추진 △상호인적·문화교류와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의 공동추진 그리고 이들 사업을 통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동선언문에는 △민족

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공동행동과 공동모임의 적극추진 △일제하 회생동포 위령사업과 회생동포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업의 공동추진 △상호인적·문화교류와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의 공동추진 그리고 이들 사업을 통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동선언문에는 △민족

동경 남북불자회의 주변 스케치

집촉불허 통보받고 당혹
○... 남북불자회의 남한측 대표단은 출발 전날인 30일가지도 잘될 것이라고 믿었던 북한주인 접촉불화가 출발당일 김포공항에서 불허통보를 받자 당황. 대표단은 합동위령법요에는 재일본불교단체 초청이므로 참석하기로 하고 남북불자회의는 현지에서 주일대사관을 통해 접촉승인을 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남북불자회의를 1시간여 앞둔 3일 오후 5시경 '공동선언문에서 서명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공식통보받고 회의에는 불참했다.
만찬자리서 다함께 노래
○... 남북불자회의는 무산됐

으나 이후 열린 만찬에서 남북 불교대표들과 한불련 조불협측은 저녁식사 후 서로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등 회의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했다. 그러나 남북불자회의는 현지에서 주일대사관을 통해 접촉승인을 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남북불자회의를 1시간여 앞둔 3일 오후 5시경 '공동선언문에서 서명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공식통보받고 회의에는 불참했다.
만찬자리서 다함께 노래
○... 남북불자회의는 무산됐

의 사인"이라고 발표. 조불련측도 회의무산을 "통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임해 쌀제공과 일일교류의 수교 등을 순조롭게 끌고가기 위한 분위기조성 차원의

소와 참배장으로 정해 동등한 입장 역할을 강조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흔적을 보여주었다. "교포 두개의 나라로 고통" ○... 남북불자회의가 끝내 무산되자 이 회의의 준비해온 한 불련회장 태연스님은 "재일동포

'추도사 읽다 눈물' 분단민족 설움 실감

그러나 고려사 참배와 조불련 소속사찰인 통곡사에서 숙박 일정을 취소했다. 분위기조성용 설도 ○... 남북불자회의 무산으로 일주스님의 방북과 남북불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타스님은 "이번 회의와 일주스님의 방북은 별개

에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역할분담 세심히 배려 ○... 공동위령법요 사회를 한불련 사무국장 해광스님과 조불협 서덕근사무국장이 함께 맡는 등 각종 식순에서 한불련과 조불협이 역할을 분배했다. 또 조불협 소속사찰인 국경사와 한불련의 고려사를 회의장

들은 두개의 나라이름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며 눈물을 보여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전날 열린 합동위령법요에서도 재일동포 신도대표와 추도사를 들으며 참석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여줘 분단민족의 아픔과 타국살이의 어려움을 짐작케 했다.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지구촌 전법이야기

송산 스님 ⑤

그 로드아일랜드 주립대학의 교수는 김 정선이라는 사람이었다. "제가 불교를 옹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교수는 대학 교수답게 차근차근 질문해 왔다. 행원스님은 그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간략히 말했다. "불교 그 자체는 오해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지요. 불교는 그저 불교일 뿐입니다. 다만 김교수께서는 한국불교를 모르시고 일본불교만 공부했다고 하니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교수는 매우 진지했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일본불교는 한국에서 전해져 간 것입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변화된 불교의 수행과 신행의 모습들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지요. 더구나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생되기도 하고 변모되기도 한 사상적인 차이점도 매우 상세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십니까." "어허, 이 양반이 교수님이시라더니... 다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불교는 지식의 학문체제로 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음알이에 얽매이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것 또한 오해의 불씨입니다." 비행기가 기류를 타고 흔들리고 있었다. 스님은 이 교수에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해야 할 것인지 잠시 생각을 했다. "인연이 있을 것이요." 로스엔젤레스. 1972년의 LA는 황량했다. 미국내의 사정도 황량했지만 교민들의 삶도 황무지와 같았다. 그 황량한 도시에 첫발을 디딘 한국 승려를 맞이한 사람은 선덕화보살이었다. 그녀는 일본 교포의 김은자 보살 동생이었는데 착하고 불심이 강했다.

빛이 됐다. 그리고 첫장부터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그 책에 불교의 전통이 쏙 서 있을 것이요. 또 그것이 한국불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나 가져다 보시지요." "고맙습니다. 가능한한 제가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해 보고 싶군요. 미국 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려면 이런 책이 필요하겠지요." "불가능할 것이 무엇이 있었소. 당신은 교수이니 잘 해 낼 것이요..."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 그 교수는 책을 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짐을 챙기며 자기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 주더니 "꼭 다시 뵙고 싶다"고 말했다.

황무지 같은 교민촌 LA에 첫발 히피사상 물든 美 젊은이 방향의 삶 목격 "스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이 오시니가 편히 저희들이 듣든지하는 것 같아요." "스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이 오시니가 편히 저희들이 듣든지하는 것 같아요."



◇ LA에 도착한 행원스님을 교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황무지 같은 교민촌 LA에 첫발

히피사상 물든 美 젊은이 방향의 삶 목격

일본에서 그랬듯이 이곳의 많은 교민들도 스님을 의지해 불교를 믿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행원스님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72년에는 미국 젊은이들의 마음에 큰 바람이 불고 있는 때였다. "미국 젊은이들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스님의 LA 행 비행기에서의 마음이었다.



◇ 지난 5일 해인사 총재암에서 열린 '승려 기본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세미나'

승려교육 체계화 세미나

승려교육 체계화 세미나
● 수행·시대요구 조화필요
● 전공과목 강사진 세분화
● 대학원과정 수의과 신설
승려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 5일 해인사 총재암에서 열렸다. 승려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 5일 해인사 총재암에서 열렸다. 승려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 5일 해인사 총재암에서 열렸다. 승려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 5일 해인사 총재암에서 열렸다.

한불련·조불협 어떤 단계

회생동포 합동위령법요와 남북불교대표회의를 주최한 재일한불련과 조불협 두 단체는 92년부터 매년 회생동포 위령법요를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고베지진 동포희생자 100일재를 함께 봉행하기도 했으며, 올해는 특히 광복 50주년을 맞아 남북 불교대표를 초청해 공동법요를 열고 남북불자들의 대화를 추진해왔다.

동포 권익옹호 앞장

일본내 한국사찰의 유대강화와 전통문화의 창달, 재일동포 권리확보를 목적으로 91년 8월 창립됐다. 30여개 사찰이 참여하고 있다. 회장인 태연스님은 지난 68년 일본에 건너가 고려사와 회생동포 위령탑을 건립해 매년 11월 위령법요를 봉행하는 등 재일동포의 정신적 지주로서 한불련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불련 대외관계는 부회장인 이명수씨가 주로 맡고 있으며, 이번 합동법요와 남북 불자회의의 막후교섭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민단과 조총련에서 조직차장과 선전부장을 역임할 정도로 교포사회에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48년 창립 北서 지원

조불협 48년 8월 조총련 40개 산하단체 중 하나로 창립돼 5개 사찰과 6명의 승려가 활동하고 있다. 5개 사찰중 통곡사 국경사는 대규모이나 나머지 사찰은 소규모 도심교당 수준이다. 조불협은 북한과 조총련의 조직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무국장 등 간부의 임명은 조총련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경에 있는 국경사도 북한과 조총련에서 비용을 지원했다. 승려양성기관은 별도로 없고 현재의 승려들은 일본 조선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전문학림 체제 "찬성" 77%

60% '강원교육후 선원가겠다' 대담 교수부족·전문성 결여 문제도 지적

지방승가대학 설문조사 결과 강원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수업에 대해서는 은사나 주시스님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는 답변이 압도적 인 반면 교수수업의 처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5%가 '비흡하다'고 지적했다. 특강 및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습 평가제도 및 유급제도는 응답자의 14.8%만이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지방승가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교수의 수와 전문성 및 교수방법(44.2%)을 꼽았으며, 해당사항의 독립성문제(30.1%), 학인들의 의식 및 수확능력, 교재와 교육내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지방승가대학의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교수보강문제